



강변

## 강줄기 옆에 문화지도를 그리는 대목수의 섬세한 눈썰미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서 발원하여 남해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강.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긴 섬진강은 길이 212.3킬로미터, 유역면적 4,896.5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청류를 자랑하는 섬진강은 많은 문학작품들 속에 육화되어 아름다움과 더불어 땅과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요철과 함께 흘러왔고, 오늘도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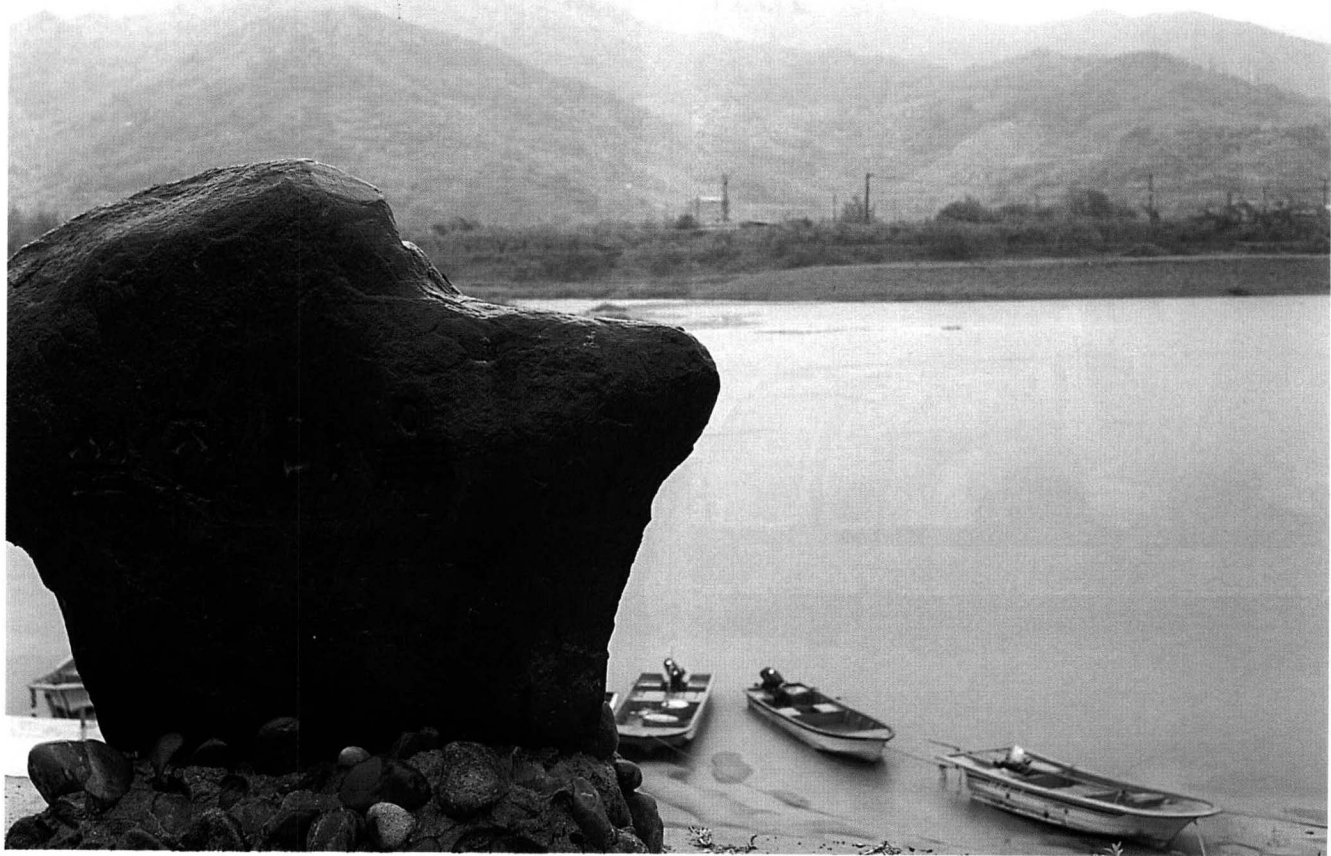
대목수이자 한옥문화원장인 신영훈 씨의 섬진강 답사기 《섬진강변의 문화회랑》은 감상이 최대한 배제된 문화지도다. 신 씨는 강줄기를 탐사하는 데만 치중하지 않고 섬진강 주변 고장의 토박이와 문화원장, 스님 등을 만나 강의 말과 사람의 말을 함께 들었다. 그래서 136쪽에 불과한 《섬진강변의 문화회랑》은 감상의 누더기인 책들보다 훨씬 값지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섬진강을 하류로부터 상류까지 훑어갔다. 하동 재첩국, 매화마을, 곡성 인간문화재, 임실 석등, 창덕리 남근석, 순창 고추장 등 섬진강과 더불어 변방에 사는 민초들의 삶과 흔적들이 이 책의 주

인공들이다. ‘회랑’이란 제목에서 드러나듯 그의 섬진강 안내를 받다 보면 쿵쿵, 울림이 들려온다.

책에서 일러준 대로 하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구례 쪽으로 발길을 잡는다. 구례는 광양만과의 합수를 앞두고 강폭이 제법 넓어지는 곳이다.

잠시 섬진강의 물줄기를 되짚어 보자. 섬진강은 노령산맥의 동쪽 경사면과 소백산맥의 서쪽 경사면인 진안군 백운면의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백운면과 마령면 등에 충적지를 발달시키고 성수면에서 흘러 임실군 운암면에서 갈담 저수지로 유입한다. 이후엔 곡성읍 북쪽에서 남원시를 지나 흘러드는 요천과 합류한 후 남동으로 흐르다가 압록 근처에서 보성강과 합류하고 지리산 남부의 협곡을 지나 경남·전남의 도계道界를 이루면서 광양만으로 흘러들어간다. 섬진강이 곡진한 삶의 토양들을 지나고, 지역감정의 경계를 지나는 강이라는 점이 여기서 증명된다.

한적한 구례 쪽에서 바라본 섬진강은 장대비처럼 쏟아져



..... 왼쪽... 낮은 하늘 아래 땅이 젖고 강이 젖는다. 마른 풀들은 오랜만에 제 몸의 먼지를 털고 생기를 찾는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 세월을 말하고 세월을 겪어낸 사람을 말한다. 산과 들이 강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을 비가 덮는다. .... 오른쪽... 재첩잡이, 오늘은 천다. 오늘은 강이 강의 주인이고, 들판이 들판의 주인이다. 주인의 몸뚱이를 싣고 강심 밑에 재첩 잡을 삼날을 꽃던 배도 오늘은 자신이 주인이다. 몸비가 푸집한 날은 사람들도 사람끼리 어울리느라 자연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었다.

내리는 봄비에 젖어 한층 넓고 유장했다. 섬진강은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할 수 없을 만큼 강의 구석구석 모두 땅과 사람을 안아주는 풍취를 자아낸다. 농투성이 삶에 지친 사람들 곁에서는 얇고 좁게 흐르며, 땅땀기 꽤나 갖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는 넓고 깊게 흐른다. 저자는 이런 섬진강의 굽이굽이와 함께 역사적 의미까지 지적해 준다.

섬진강은 낙동강, 금강과 더불어 서울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 흐름은 역사 속의 권력자들에게 눈엣가시였다. 강물이 권부를 향해 흐르지 않는 것은 역모기운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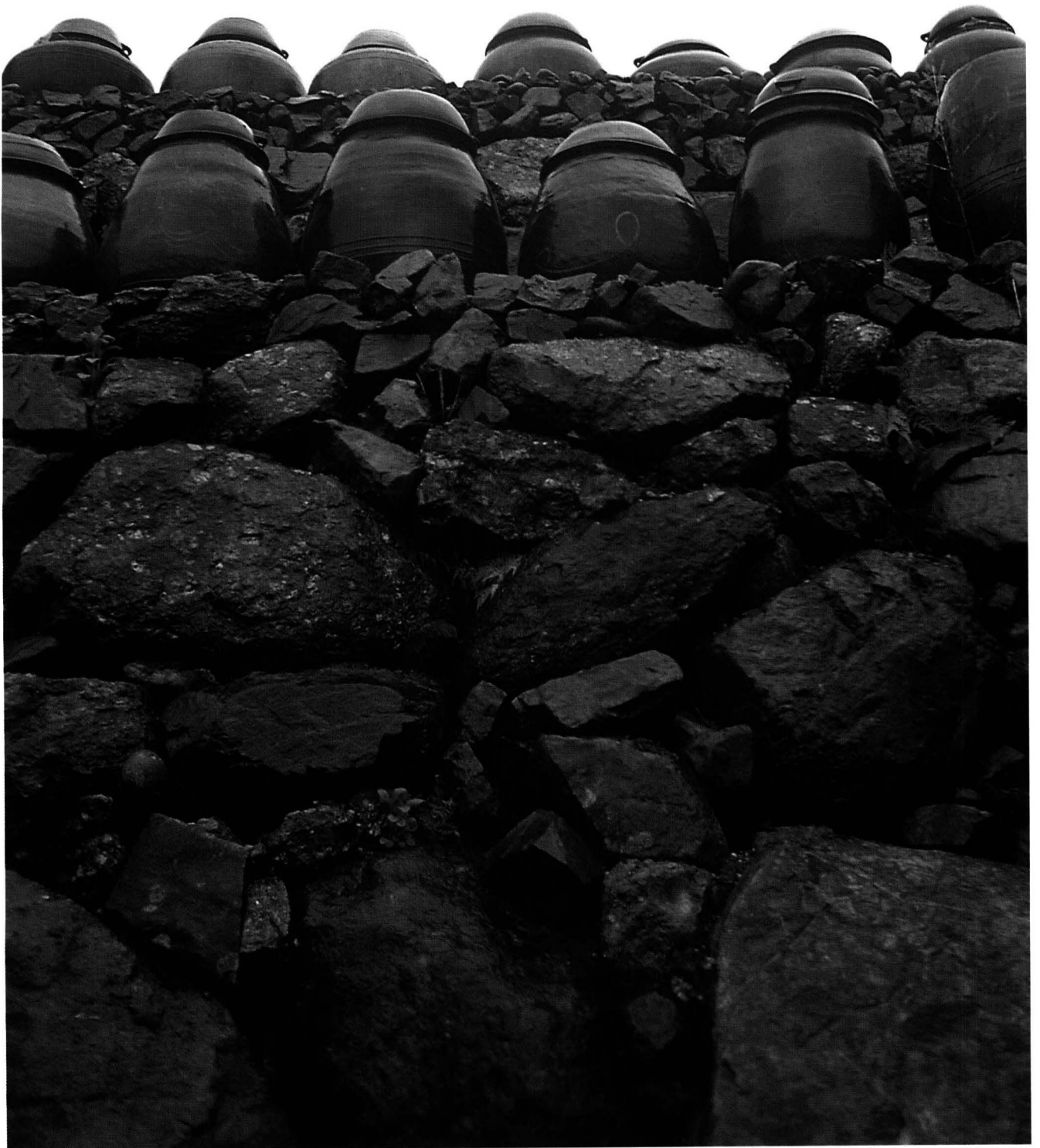
강물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섬진강은 질곡의 역사를 지켜보며 흘러야 한 적도 많았다. 조선 후기에는 섬진강 유역 전체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고, 동학혁명(1894) 이후 임실에서부터 순천, 광양, 하동까지 농민군이 크게 활동했던 것. 일제의 침략 후에는 반일 의병투쟁의 마당이 됐고, 6·25 때는 좌우 이데올로기가 대립한 이념의 강이 돼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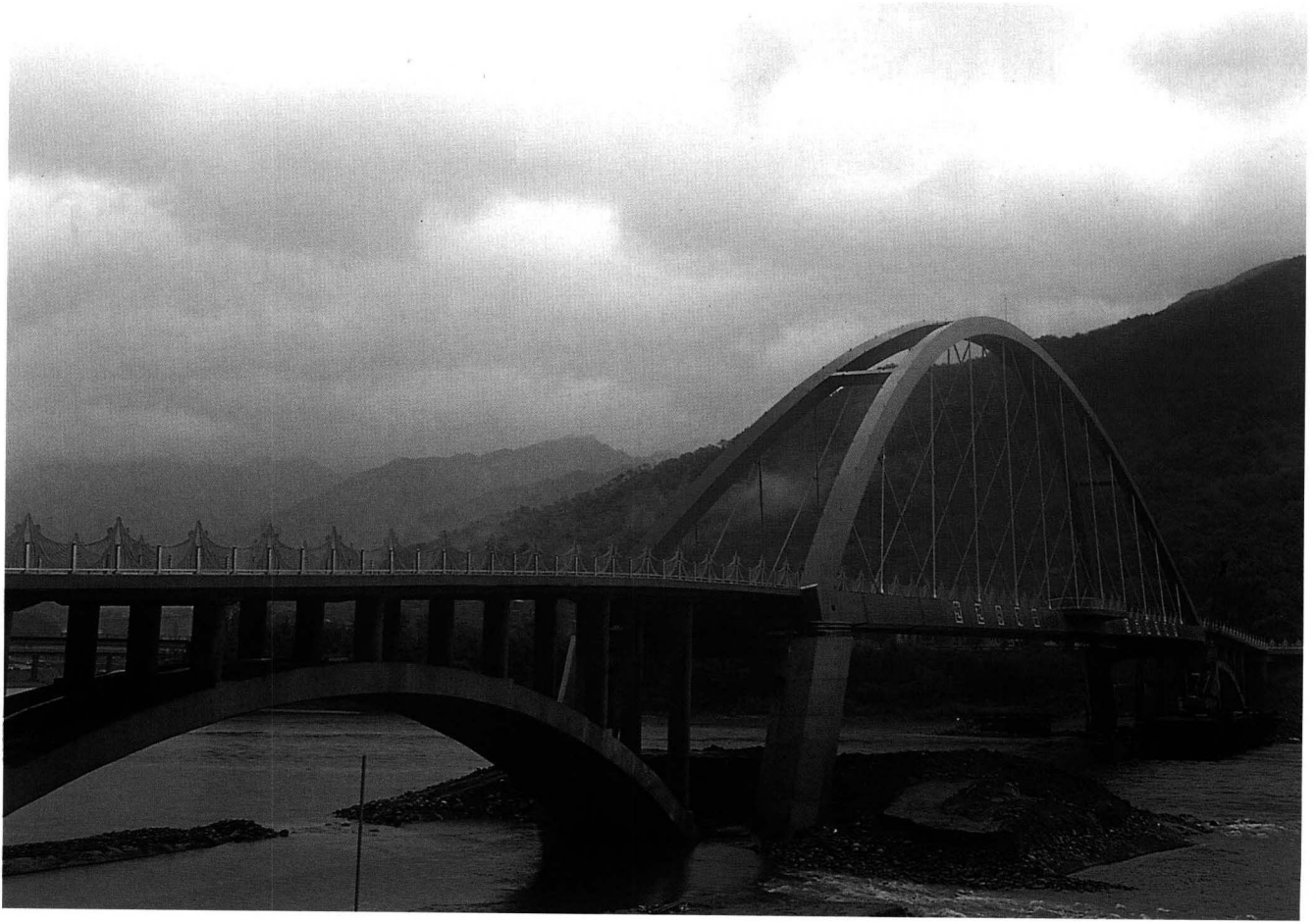
현대사 속의 섬진강은 가수 조영남의 노랫가사에서도 출렁인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닳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조영남의 <화개장터>는 이를테면 영호남 가교역을 바라는 희망가이기도 한 셈이다.

섬진나루는 1930년대 하류에 섬진강교가 가설되기 전까지는 경남과 전남을 잇는 영호남 교통의 요충지였다. 하동, 악양, 화개로 가려면 섬진나루를 건널 수밖에 없어 조선시대에만 해도 관원들의 행차가 잦았던 곳이다. 그런 만큼 전에는 강 서쪽과 동편에 사는 주민들이 사돈을 맺고 지내는 고장이었다. 지금 '화합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영호남을 잇는 대교를 가설하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시대의 희극적 풍경에 속한다.

섬진강변의 명물로 자리잡은 곳이 있다.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매화마을이 그곳이다. 저자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다압면 도사리가 밤나무와 매화나무 단지로 유명하게 된 것은 울산 김

VB





.....왼쪽... 전통옹기는 숨을 쉰다. 숨을 쉬어 고추장 간장을 발효시켜 내는 동시에 마당 가득 농심이 들어찬 풍경화로 변한다. 장독대의 행렬이 아름다운 것은 자  
래를 뿜내지 않고 제 투박함과 닳은 구수한 인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른쪽... 광양만으로 흘러들기 전 뱀시 좋은 남해대교 밑을 흐르는 섬진 강물은 5백리를  
달려내려와 산과 들의 정취를 내려놓은 채 얼마 후 바다와 몸을 섞는다.

오천 옹이 일제시대 때 고향에 이들 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데서  
시작됐다. 그때의 묘목들이 지금은 관광상품이 되어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품명인 홍쌍리 씨가 일군 청매실농원  
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답사 1번지로 꼽힐 정도다. 매화는 물론이  
러니와 농원 앞마당을 가득 메운 2천여 개의 장독 행렬은 강과  
산과 매화의 삼중주를 듣는 듯 눈과 귀를 매혹에 빠뜨린다.

섬진강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맑아지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섬진강을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길고 긴 백사장의 모래들은 트럭에 실려  
팔려나가기도 했고, 물막이 댐은 강의 흐름을 방해했다. 대목수  
신영훈의 눈길이 이 기다란 섬진 물줄기에 가 닿은 것은 '이러다  
가 문화유산까지 훼손되면 어찌랴' 싶은 걱정 때문이다.

때아닌 장대비에 모처럼 쾌속으로 치닫는 섬진강 물줄기,  
그 속에 짧은 봄날도 떠내려가고 있었다. ☞

취재 강경희 기자· 사진 박신우 기자

섬진강의 유래.....섬진강(淸津江)은 본래 고운 모래가 많아 가람, 사수천, 사천, 다사  
강으로 불리다가 고려 초기부터 두치강으로 불렸다. 고려 우왕 때는 왜구의 침입이  
많았던 시기인데 광양만과 섬진강에도 왜구의 침략이 극심하였다. 왜구들이 경남  
하동 쪽에서 강을 건너 광양 쪽으로 침입하려 하자 진상면 섬거에 살던 두꺼비 수십  
만 마리가 8킬로미터나 떨어진 지금의 다압면 섬진마을 나루터로 떼를 지어 몰려와  
진을 치고 울부짖어 왜구들이 놀라 도망쳤다고 한다. 이때부터 당시 두치강으로 부  
르던 강을 두꺼비 '섬뱀' 지를 따 섬진강으로 부르고 있다.



《섬진강변의 문화회랑》 저자 신영훈은.....1935년 개성  
에서 출생하였다. 1959년부터 국가지정 중요 국보·보물  
보수에 종사해 왔다. 문화재 전문위원이다. 목조건축물  
의 연구와 조영에 많이 참여하였고, 전남 승주 송광사 대  
웅보전(1990), 파리 고암서방(이응로 화백 기념관,  
1992), 경북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1994), 충북 진천 보탑사 삼층목탑(1996), 충  
남 해미 미륵사 미륵전(2000) 등을 지었다.

저서로 《한옥과 그 역사》 《신라의 기와》 《한국의 살림집》 《한국의 사원건축》 《한국  
의 궁실건축》 《한옥의 미학》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한옥의 조영》 《절로 가는  
마음 1. 2》 《우리문화 이웃문화》 《우리문화 우리역사 답사기 1. 2》 《신영훈의 역사  
기행 시리즈》 등이 있다.